

조선후기 『花潭集』 刊行의 推移와 徐敬德 學問*

정 호 훈**

1. 머리말
2. 16·17세기의 『화담집』 간행: 學統에서의 서경덕 학문 계승의식
 - 1) 『화담집』의 원형: 초간본과 재간본
 - 2) 외연의 확장: 3간본의 편찬
3. 18세기 開城 儒生の 『화담집』 간행과 ‘洛學’
 - 1) 영조대의 4간본 간행
 - 2) 정조대의 5간본 간행과 그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후기, 비 주류적 위치에 있던 서경덕의 학문을 학계로 확산하는 움직임에서 중심을 이루는 사안은 그를 제사하는 서원·사우를 세우는 일, 그의 문집 『화담집』을 간행하는 일이었다. 서경덕 사후 그의 자손·후학들은 개성에 崇陽書院·花谷書院과 같은 서원을 세워 그의 학문을 기리고 전승하는 공간으로 삼았고, 그의 遺文을 모아 『화담집』을 간행, 배포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의 사상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업은 문집의 편찬과 간행이었다. 서경덕의

* 이 논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제32회 HK워크숍 “조선의 기록문화” (2018.05.24)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생각을 유지하고 전파함에 문집이야말로 최고의 매체였기 때문이다.

『화담집』은 16세기 서경덕 사후 처음 간행된 이래, 17세기 초의 재간, 17세기 중·후반의 3간, 영조대의 4간, 정조대의 5간 등 모두 다섯 차례 간행되었다. 간행을 거듭하며 『화담집』은 구성 방식, 수록되는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오늘날 널리 보는 『화담집』은 대체로 5간본이다.¹⁾ 이 판본은 낙론계 인물 金用謙의 편집본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된 4간본을 수정·보완하여 간행되었다.

조선에서 한 사람의 문집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간행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로 李滉, 曹植, 李珣와 같은 큰 학자의 문집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²⁾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이들 학자의 후학들은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스승의 문집을 보다 완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화담집』의 간행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화담집』 간행에 참가했던 사람이 “문집 간행은 오래 오래 전하기 위해서이다. 간행본이 정밀하지 않고 자세하지 않다면 오래도록 전해지지 못하게 되니, 그렇다면 그것은 애초 간행하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³⁾라고 한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화담집』 간행에는 이 문집을 보다 정밀하고 자세하게 만들고자 하는 후학들의 열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 글은 『화담집』 간행 자체에 대한 사실 해명을 일차 목표로 한다. 『화담집』이 모두 다섯 차례 간행된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⁴⁾ 그 정리된 내용이 충분하지

1)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에 실린 『花潭集』은 5간본을 저본으로 했다. 『화담집』의 김학주 번역본(1992 세계사), 황광욱 번역본(2004 심산)도 5간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2) 『退溪集』, 『南冥集』, 『栗谷集』 간행의 추이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문석윤, 2017 『《退溪先生文集》에서 《定本 退溪全書》까지』 『韓國思想史學』 55: 김윤수, 1992 「남명집의 冊板과 印本の 계통」 『南冥學研究』 2: 오이환, 2010 「『南冥集』 諸板本の 간행연대」 『南冥學研究』 29: 정호훈, 2011 「16·17세기 栗谷學派의 형성과 활동: 著述·文集의 편찬과 政治論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03: 김태년, 2014 「‘正典’ 만들기의 한 사례, 『栗谷別集』의 편찬과 그에 대한 비판들」 『민족문화』 43 참조.

3) 『花潭集』 花潭先生文集重刊跋[蔡緯夏] “文集之刊 所以壽其傳 刊之而不精不詳 則其傳不壽 與不刊奚異哉 松京舊有花潭集板本 而編次失序 字行欠精 加以歲久黜昧 又有遺失而未及盡載者 豈非斯文之所可恨者耶”

4) 吳世玉, 1991 「해제」 『花潭集』, 한국고전번역원.

않고, 또 『화담집』에 대한 서지적 이해도 대체로 정확하지 않으므로,⁵⁾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이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

『화담집』 간행은 조선후기 개인의 문집 편찬과 출판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서경덕의 학문과 사상을 조선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계기 또한 잘 드러낸다. 開城이란 특정 공간의 학술 동향 또한 반영하고 있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花潭學派의 성장과 변화, 서경덕 사상의 확산 방식에 대한 이해,⁶⁾ 나아가 조선후기 학술계가 움직여 나가는 양상의 일단 역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2. 16·17세기의 『화담집』 간행: 學統에서의 서경덕 학문 계승의식

1) 『화담집』의 원형: 초간본과 재간본

『화담집』은 서경덕 사후 편찬 간행되었다. 편찬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原理氣』 등 서경덕의 핵심 사유를 담고 있는 글이 그의 죽음 직전에 정리된 것으로 본다면, 그의 문집이 간행된 시점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초간 시점, 장소 등은 분명하지 않다. 문집 간행은 대체로 자손, 제자들의 편집을 거치고 간행비를 모은 뒤 板刻이 행해지는 과정을 거치므로 『화담집』

5)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화담집』 해제의 하나이다. '乙巳 殷山本'의 간행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花潭集은 서경덕 사후 그의 문인인 朴枝華·許曄 등이 詩와 文章을 수집하여 간행하였으나 임란을 거치면서 散逸되었다. 1605년(선조 38) 殷山 縣監 洪雱이 서경덕의 학문을 흠모하여 문집을 구하다가, 尹孝先의 跋文이 붙은 사본을 구해 다시 출간하였다. 이것이 乙巳 殷山本이다. 한 古本은 序文이나 跋文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자세한 간행 경위를 알 수 없다. 체제에도 일관성이 없어 시와 문, 잡저 등이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다.”

6) 서경덕의 후학들은 대체로 花潭學派를 이루고, 東人-北人으로서 활동했으며, 서경덕의 학문은 노론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병주, 2000 『남명학파와 화담학과 연구』, 일지사; 정호훈, 2004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해안; 조성산, 2017 『18세기 노론 지식인 楊應秀의 花潭學 인식』 『民族文化研究』 7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의 출간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⁷⁾

책의 간행은 朴民獻과 許曄 등 후학들이 주도했다고 전해온다. 현존하는 초간본에는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실려 있지 않다. 다만 후대의 기록을 통하여 朴民獻과 許曄이 원고를 편집했음을 확인하게 된다.⁸⁾ 간행지 또한 분명하지 않다. 崇陽書院이 세워진 때가 1573년(선조 6)⁹⁾이므로 이 시간 이후 이곳에서의 公刊도 고려할 수 있겠다.¹⁰⁾

초간본은 권1, 권2로 구성되어 있다.¹¹⁾ 권1에는 「原理氣」, 「鬼神死生論」, 「理氣說」을 비롯 「送沈教授序」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글이 실려 있다. 겉으로 보기에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듯하지만, 글의 중요성 혹은 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편집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기론과 귀신설을 다룬 글을 먼저 배치하고, 이어 易學·象數學을 바탕으로 聲音·卦爻를 정리한 글, 상소문, 편지, 銘 등을 순차적으로 실었다. 서경덕 사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곳은 제 1권 전반부이다.

권2에는 시 70여 편이 있다. 이들 시편은 누군가의 시에 차운하거나 타인에게 기증하는 작품이 많아 서경덕의 교유 관계를 살핌에 큰 도움이 된다. 慕齋 金安國, 교수 沈義, 開成留守 李梁, 葆眞庵 趙昱,¹²⁾ 金惠孫, 朴民獻, 黃元孫, 教授 張

7) 權好文이 1582년(선조 15) 『화담집』을 읽은 독후감을 趙穆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松巖集』 권3, 題徐花潭集後 示趙月川壬午). 이때의 『화담집』은 간행본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8) 『花潭集』 花潭先生文集跋[尹孝先] “兵火之餘 書籍散亡 竊以不獲見先生著述爲痛恨 間求遺稿於嗣子龍潭公則出示一冊 詩與文乃其門下朴公頤正 許公太輝所裒集”

9) 『松京誌』 권4, 崇陽書院, 17ㄴ.

10) 1652년 윤휴가 『화담집』을 다시 간행하며 작성한 서문을 보면 송양서원에서 “문집을 다시 관각하기로 했다”(『白湖全書』 권24, 重刊花潭集序 壬辰 “小子間從先生之表曾孫李君珮遊及諸士友 語及于此 相與歎息 遂謀更鈹文集於崧陽書院”)는 내용이 나온다. 이 구절을 ‘사라진 문집을 다시 송양서원에서 간행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 ‘송양서원에서 간행했던 문집을 다시 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후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볼 수 있다.

11) 古貴819.52-Se61s는 末松保和 장서인이 찍혀 있고 奎1687는 홍문관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인쇄 시기는 의견상 전자가 더 앞선다.

12) 『贈葆眞庵』은 趙昱에게 준 시이다. 이 시에 대해 李濟臣은 어떤 사람이 지은 위작으로 의심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淸江先生鱗鱗瑣語』).

綸, 유수 李龜齡, 企齋 申光漢, 유수 沈彥慶, 別提 沈宗元, 上舍 趙玉, 正字 林蒼, 參奉 朴漑, 洪漑 등이 등장한다. 金安國은 1540년(중종 35), 고관들이 逸士를 천거할 때 生員 서경덕을 천거할 정도로¹³⁾ 가까웠던 인물이다. 趙昱, 申光漢 등은 16세기 전·중반,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던 학자로 성리학의 소양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화담집』의 초간 시점은 뚜렷하지 않지만, 편집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마련되어 유통된 것으로 여겨진다. 홍인우가 박민현에게 처음 화담집 유고를 빌려본 해가 1552년(명종 7)이었는데,¹⁴⁾ 이로써 본다면 서경덕 사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의 시문을 수집하고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홍인우는 이후 이 원고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열람하게 하였다. 이황도 홍인우를 통하여 이를 빌려 볼 수 있었는데,¹⁵⁾ 화담 유고의 독후감인 『書徐處士花潭集後』¹⁶⁾ 3수도 홍인우에게서 책을 빌려본 이후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된 서경덕의 글은 당시 조선 학계의 현재를 살피고 지향을 정함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동료·제자들은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학문 활동을 했거니와, 이황과 같은 인물은 그의 생각에 놀라워하며 이를 배척하고자 했다.

이황은 서경덕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경덕의 제자 허엽과 같은 인물이 서경덕을 크게 높이는 것에 크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황은 서경덕의 작품 가운데 문제없는 것이 없다고¹⁷⁾ 할 정도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 이황에게 서경덕의 사유는 理를 氣로 인식하고 혹은 氣를 理로 지칭하는 것, 佛學에 가까운 생각으로¹⁸⁾ 인식되었다.¹⁹⁾ 서경덕이 邵雍, 張載 등 북송대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13) 『中宗實錄』 권93, 35년 7월 16일 乙巳. 중종 39년, 조정에서는 서경덕을 厚陵參奉에 제수했으나 출사하지 않아 교체되었다(『中宗實錄』 권103, 39년 5월 1일 戊戌; 『中宗實錄』 권103, 39년 6월 6일 癸酉).

14) 『恥齋遺稿』 권2, 日錄鈔 “十月初三日 送人希正 取花潭遺稿來 敬讀之 益嘆其命世之才 經世之學也” 이 책이 간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단은 필사본으로 보았다.

15) 『退溪集』 권13, 與洪應吉 “見諾徐復齋所著傳了 切望寄示”; 『恥齋遺稿』 권1, 答退溪書 “復齋稿全秩 時未返此 後當持進”

16) 『退溪集』 권2, 詩. 이 시는 1553년(癸丑, 명종 8) 열에 실려 있다.

17) 『退溪集』 권25, 答鄭子中講目 “花潭所見 殊未精密 觀其所著諸說 無一篇無病痛”

18) 『退溪集』 권14, 答南時甫 “其爲說未免認理爲氣 亦或有指氣爲理者 故今諸子亦或狃於其說

받아 ‘氣’를 중심에 두고 사유하고 있었으므로,²⁰⁾ 이황의 이러한 비판은 서경덕 핵심 사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황의 서경덕 비판은 陸王學에 대한 강력한 辨斥²¹⁾에서 볼 수 있는 바, 주자학의 사유를 벗어나는 그 어떤 활동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그의 태도와 맞닿아 있었는데, 이는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서경덕의 사유를 판단하고 받아들임에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이황의 비판에 蓮坊 李球나 許曄과 같은 제자들의 반발 또한 격심했는데,²²⁾ 향후 서경덕의 학문에 대한 조선 학계의 태도는 그를 깊이 존신하며 따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기면서도 그 장점과 가치를 찾아 긍정하거나,²³⁾ 아니면 완전히 배척하는²⁴⁾ 양상을 보였다.

초간본 『화담집』은 1592년의 전쟁을 겪으면서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²⁵⁾ 이

必欲以氣爲亘古今常存不滅之物 不知不覺之頃 已陷於釋氏之見 諸公固爲非矣” 이황은 서경덕에 대한 비판과도 관련하여 『非理氣爲一物辯證』이란 글을 지어 理의 절대성을 강조했다(『退溪集』 권41, 非理氣爲一物辯證).

- 19) 이런 점은 그의 후학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權好文은 『花潭集』을 읽고 서경덕이 禪에 물들었다고 했다(『松巖集』 권3, 題徐花潭集後 示趙月川士敬 壬午 “煞用工夫在先天 輕於事物任探玄 試觀啓鑰抽關意 白處雖明似染禪”).
- 20) 여기에 대해서는 丁垣在, 1990 『徐敬德과 그 학파의 先天學說』,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황광욱, 2003 『화담 서경덕의 철학사상: 화담 철학과 그 문인의 사상』, 심산 참조.
- 21) 『退溪集』 권41, 白沙詩教傳習錄抄傳 因書其後: 권41, 傳習錄論辯: 권41, 白沙詩教辯.
- 22) 『退溪集』 권15, 答許太輝 戊辰 “示及蓮坊書 謹悉 其所謂輕論先輩之病 甚善 此必有爲而發如滉者 恐或有未免此病之時 爲之悚惕 當思改轍 但朱先生雖有此戒 及其論辨道學差誤處 纖毫不放過 不以前輩而有所掩覆 此必有意在耳 如何如何”
- 23) 이이의 서경덕에 대한 평가는 그의 영향을 받았던 서인 학통에 하나의 지침 역할을 했다. 이를테면 다음 언급이 그러한데, 이는 뒷날 『화담집』을 보강할 때 활용되었다.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近觀整菴退溪花潭三先生之說 整菴最高 退溪次之 花潭又次之 就中整菴花潭 多自得之味 退溪多依樣之味 (중략) 理無變而氣有變 元氣生生不息 往者過來者續 而已往之氣 已無所在 而花潭則以爲一氣長存 往者不過 來者不續 此花潭所以有認氣爲理之病也 雖然 偏全間 花潭是自得之見也 今之學者 開口便說理無形而氣有形 理氣決非一物 此非自言也 傳人之言也 何足以敵花潭之口而服花潭之心哉”
- 24) 17세기 유자 가운데서는 다음 글에서 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曹好益, 『芝山集』 권5, 題徐花潭鬼神死生論後: 『厚齋集』 권40, 題花潭先生集後.
- 25) 전쟁을 거치며 『화담집』은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중국의 『四庫全書』에는 초간본 『화담집』이 실렸다. 『사고전서』의 찬자들은 이 책의 구성을 두고 ‘雜文’을 먼저 실고 ‘雜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며, 洪霧 또한 그 일인이었다. 홍방은 1605년 평안도 殷山의 현감으로 재직하던 중 초간본을 저본으로 재간본을 간행했다.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公廩을 헐고 工匠 몇 명을 모아[損公廩, 募聚工匠若干手]²⁶⁾ 책을 간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 재간본의 간행지이다. 개성과는 거리가 사뭇 먼 은산에서 재간본은 탄생했다.

재간본은 초간본에 비해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권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한 책으로 만든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본문에 실린 글은 초간본의 순서 그대로 수록했다. 이점에서 재간본은 초간본과 동일한 성격의 책이라 할 수 있다. 1585년 박민헌이 작성한 신도비명²⁷⁾을 본문 뒤 부록 형식으로 실은 점은 초간본과의 차이점이다. 서경덕은 1574년(선조7) 우의정에 추증되고²⁸⁾ ‘文康’으로 시호를 받았는데, 이후 그의 제자 朴民獻이 비명을 썼다.

박민헌의 서경덕 신도비명은 문집이면 통상 수록하는 문집 주인공의 行狀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다. 초간본에는 행장이나 墓誌銘 등 서경덕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뒤늦게 작성된 신도비명을 실어 서경덕의 생애를 개괄적이거나 보이게 된 것이다. 실상 서경덕의 행장은 그의 사후 누군가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成渾이 1571년(선조 4), 송도 사람 安慶昌의 집에서 구해본 행장이 이를 증거 한다.²⁹⁾ 하지만 이 행장은 여러모로 부족했던 모양이다. 성혼은 박민헌이 작성했다는 이 글이 행장으로서의 격을 갖추지 못하고 오류가 많다고 여기고 새로 보완하려고 했었다.

재간본의 말미에는 홍방이 재간본을 간행하게 된 이유를 짚막하게 서술하고

詩를 이어 실었다고 소개했다(『海東釋史』 권43, 藝文志2 經籍2 本國書目2 史子集).

26) 『花潭集』(2간본), 跋文.

27) 제목은 다음과 같다.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諡文康公花潭徐先生神道碑銘 並書”

28) 『宣祖實錄』 권9, 8년 5월 미상 □□; 『宣祖修正實錄』 권9, 8년 5월 11일 戊申.

29) 『牛溪續集』 권6, 雜著 書花潭先生行狀卷端 “松都安慶昌自言 家有花潭先生行狀 取而讀之 則紀載不備 且文多誤字 而文體 乃傳也非狀也 不知爲何人所作 而後諡于沈文叔則曰 朴觀察民獻所撰也 余益疑之 (중략) 姑謄于此 以校定於善本 且以博採所聞之可信者 逐一條記總會爲先生實錄 要爲全備云 辛未冬 書”

서경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原理氣』 등의 여러 글은 앞선 聖인들이 밝혀 내지 못한 뜻을 드러내고 象數의 오묘함을 미루어 넓혀, 심오한 뜻을 천명하고 숨어 있는 이치를 열어 보였으니, 후학들에게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 홍방의 평가였다.³⁰⁾

홍방이 『화담집』을 간행하게 된 사정은 아버지 洪履祥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홍이상은 서경덕의 제자 閔純에게서 배워 학문의 기초를 익혔다.³¹⁾ 민순이나 及門한 동료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매우 높게 평가할 정도로 홍이상은 민순의 가르침에 충실했다. 더불어 홍이상은 비록 서경덕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민순을 통하여 서경덕의 학통을 계승하였음을 자부하였다. 후대인들 또한 그의 학문 연원이 서경덕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공은 杏村 閔先生에게 배웠다. 행촌의 학문은 화담 徐先生에게서 나왔으니 그의 학문 연원은 절로 내력이 있다. ‘灑掃應待’에서 시작하고 ‘窮理盡性’으로 끝을 맺었으며, 평소 덕을 쌓아 길렀고 體用을 겸비했다. 오로지 爲己之學에 힘써 실천이 독실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주기를 꺼려했다. 그러므로 그 나아간 바 깊이는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³²⁾

홍이상은 관료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개성과 많은 인연을 맺었다. 1596년 개성 유수로 부임하였으며,³³⁾ 1612년(광해 4)에도 개성유수로 부임하여 임기를 마쳤다.³⁴⁾ 이 시절 화담에 祠宇를 만들어³⁵⁾ 서경덕의 학문을 기린 점은 그의 큰 업

30) 권말에 刊記가 있다. 萬曆 33, 乙巳年에 평안도 殷山에서 改版하고 曹守誠이 書寫했음을 명기하여 책의 간행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했다.

31) 『慕堂集』附錄 行狀 “遂往拜習靜閔先生於杏村 講論四書及先儒性理之書 研窮奧旨 探索義理 孳孳爲學 如恐不及 而以敬之一字 爲涵養之地 戒謹恐懼於不覩不聞之中 而於一念萌動之際 尤致謹焉 先生心甚許焉 常以篤志力學稱歎不容口 一時諸生之及門者 皆自以爲不及焉”

32) 위의 글 “公學於杏村閔先生 而杏村之學 出於花潭徐先生 其學問淵源 有自來矣 始於灑掃 終於窮理盡性 充養有素 體用兼備 而惟其專務爲己 踐履篤實 而不爲昭灼之行 以斬人之必知 故其所造淺深 有非他人所可窺闚 而其家庭日用之間 處事接物之際 動靜語默 無不當理 苟非涵養之深根基之厚 能若是乎”

33) 위의 글 “丙申始得辭筮 拜僉知中樞府事兼備邊司堂上 七月拜都摠府副摠管 未幾拜京畿道觀察使兼巡察使開城府留守 時經變之後 畿涸耗 公蘇殘起弊 黜陟嚴明 民生安集 列邑稍完 壬子春 拜大司諫又辭筮 夏拜大司成兼同知春秋館事 九月出爲開城留守”

적으로 꼽힌다. 이 사우는 뒷날 花谷書院으로 사액되는데, 서경덕을 主享으로 하고 허엽, 박순, 민순을 配享했다.³⁶⁾ 이로써 서경덕과 그의 학통을 천양하는 중심 공간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하겠다. 선조 초에 만들어진 崧陽書院에 서경덕이 배향되어 있었지만 그곳의 중심은 정몽주였다. 서경덕과 그 후학들의 공간은 아니었다.³⁷⁾ 개성에서의 서경덕 학문 확장에 홍이상이 세운 공은 컸다. 훗날 『松京誌』에서는 그를 서경덕의 嫡傳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³⁸⁾ 또 개성 사람들은 그를 화곡서원에 배향할 수 있도록 나라에 청원하려고 했다.³⁹⁾ 홍방의 『화담집』 간행은 말하자면 아버지가 차지하는 위상 위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홍방이 『화담집』을 재간할 때,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홍이상은 이때 살아 있었으므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⁴⁰⁾

이와 같이 『화담집』은 서경덕 사후 50여 년 사이에 두 차례 편찬, 간행되었다. 『화담집』의 원형을 갖는 초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때의 간행 작업은 서경덕의 학통을 직접 이은 후학들이 주도했다. 조선 각 지역에서 큰 학자들이 출현하며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각축의 장에서, 후학들은 이 책을 통하여 서경덕의 사상이 온전히 확산되며 학술의 大河를 이루기를 열망했다. 스승의 학문에 대한 깊은 자부심, 스승에 대한 경모 의식은 이들을 지배했다. 문집의 간행

34) 『光海君日記』 [中草本] 권57, 4년 9월 18일 己酉.

35) 『松京誌』 권4, 學校 36ㄱ “徐花潭門人有閔杏村純 杏村門人有洪慕堂履祥 而道德文章 冠冕一世 其於徐先生有私淑之義 己酉建院時 實與白沙相公倡議爲之 其後爲本府留守 多有惠政”

36) 金履載의 서문과 徐憲淳의 발문이 실린 19세기 전반 간행된 『松京誌』에 따르면 화곡서원은 1609년(광해 1)에 처음 창설되고 1635년(인조 13)에 賜額되었다(『松京誌』 권4, 學校 32ㄱ). 이하 인용하는 『송경지』는 모두 이 책을 가리킨다.

37) 1573년(선조 6) 개성 유수 南應雲이 鄭夢周의 충절을 기리고 徐敬德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정몽주의 집터에 文忠堂을 창건하면서 비롯되었다. 1575년에 ‘송양’이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었다(『圃隱集』 附錄 萬曆乙亥 崧陽書院賜祭文).

38) 『松京志』 권4, 學校 33ㄴ “慕堂公私淑杏村之門 道學文章 冠冕一世 蔚然爲先生之嫡傳” 이 평가는 조유선의 발언이다(『蘿山集』 권7, 花谷書院重修記).

39) 『松京志』 권4, 學校 36ㄱ “徐花潭門人有閔杏村純 杏村門人有洪慕堂履祥 而道德文章 冠冕一世 其於徐先生有私淑之義 己酉建院時 實與白沙相公倡議爲之 其後爲本府留守 多有惠政 故士林尊慕 久有本院醴享之論 正宗庚申 多士爾足上京 值朝家有事 未及封狀”

40) 『月沙集』 권43, 大司憲洪公神道碑銘 并序.

공간은 초간본의 경우 분명하지 않으며 재간본은 평안도 은산이었다. 송양서원이 1573년(선조 6)에 설립되고 1575년에 사액되었으므로⁴¹⁾ 초간본의 간행지로 송양서원을 배제할 수 없다.

2) 외연의 확장: 3간본의 편찬

『화담집』은 17세기 중반 새로운 형태로 재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은 윤희가 작성한 「花潭集重刊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1652년 崇陽書院에서 문집을 간행할 때 지었다. 윤희는 이 글에서 서경덕의 문집이 유포된 범위가 넓지 못하여 서경덕의 학문이 널리 확산되지 못할까 걱정하며, 서경덕의 외증손 李淑⁴²⁾ 및 여러 士友들과 의논하여 이 책을 간행했다고 한다. 다음은 『화담집』의 구성, 자료에 관한 언급이다.

小子는 가끔 선생의 외증손 李淑君 및 여러 士友들과 함께 이 일을 언급할 때마다(문집이 널리 유포되지 않은 사실-필자 주) 서로 탄식을 해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송양서원에서 다시 문집을 출판할 것을 계획하고, 또 여러 儒先들의 草稿 속에 흩어져 있는 선생의 遺事나 逸記들을 찾아 모아 합해서 하나의 小篇을 만들어 卷末에 붙여서 영구히 전하기를 도모하는 바이다. 卷中の 「桃竹杖賦」 1편은 본디 문집 속에 실려 있지 않았는데, 松都의 노인 員外 曹公에게 얻었다. 이 노인은 나이가 80여 세인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글을 읽어 익혔으므로 늙어서도 항상 입에서 맴돈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이 글은 선생이 지은 것으로 한때 膾炙되었던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또 널리 수색하여 謄本 및 跋文 한 통을 얻었으니, 이것은 곧 후의 선인이 스스로 저술하여 집에 갈무리해온 것이다.⁴³⁾

이 글에 따르면 새로 간행한 문집은 이전에 나온 책에 더하여 서경덕의 遺事나 逸記들을 여러 사람들의 원고에서 찾아 모아 小篇으로 만들어 권말에 붙이고, 송도의 員外 曹公에게서 서경덕의 새로운 작품인 「桃竹杖賦」를 얻어 실었으

41) 『松京誌』 권4, 學校 17ㄴ.

42)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이숙은 개성부에 거주하는 진사였다(『承政院日記』 인조 1년 7월 7일 乙未).

43) 『白湖全書』 권24, 重刊花潭集序 壬辰; 『白湖集』 권22, 重刊徐花潭集序.

며, 윤희의 아버지가 저술하여 家藏해 오던 발문을 같이 실었음을 알 수 있다. 초·재간본에 비한다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셈인데, 서경덕의 글로서 새로 『桃竹杖賦』를 발굴하여⁴⁴⁾ 실은 점은 가장 큰 특색이라 하겠다. 이 글이 서경덕의 친작인지 그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윤희를 비롯한 간여자들은 이를 믿고 수록했다. 윤희의 아버지가 가장해오던 跋文을 실은 점도 흥미롭다. 윤희의 아버지는 尹孝全이다. 초명은 尹孝先이었다. 臨海君 역모 때 큰 공을 세워 翼社功臣에 책록 되었으며,⁴⁵⁾ 北人으로 활동했다.

윤희가 언급한 송양서원에서 간행한 문집은 실물 확인이 어렵다. 이 책이 간행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셈인데, 다만 朗善君 李佖(1637~1693)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東洋文庫 소장본⁴⁶⁾[이하 동양문고본]에서 이때의 간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이 책은 홍방의 재간본 체재를 유지했지만 몇 가지 달라졌다. 『桃竹杖賦』가 문집의 말미에 첨가되고, 부록으로 서경덕에 관한 당대인들의 기록이 정리되어 실렸다. 尹孝先이 작성한 跋文, 『화담집』을 서원 釋菜 時에 올린 글도 부록 뒤에 실렸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44) 『桃竹杖賦』는 도죽으로 만든 지팡이의 고마움을 의인화하여 읊은 부이다. 두보의 『桃竹杖引』을 원용한 작품으로 보인다. 16세기 전반, 두보의 이 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데, 그 흔적은 金麟厚의 『用工部桃竹詩韻謝申丈漆杖』(『河西全集』 권4), 周世鵬의 『烏竹杖贈申幼清次杜工部韻』(『武陵雜稿』 권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光海君日記』[中草本] 권64, 5년 3월 12일 庚午 기사 참조.

46) 이우는 선조의 손자로 도서와 서화의 소장·품평가로 알려져 있다. 왕실 자료 편찬에도 많이 참가했고, 중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그가 『화담집』을 소장했던 사정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남인들 특히 許穆과 친했는데, 그러한 인연이 『화담집』 소장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우의 생애, 정치적 성향, 활동 상황, 그리고 그가 소장했던 도서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황정연, 2003 『朗善君 李佖의 書畫 收藏과 編纂』 『藏書閣』 9; 황정연, 2012 『朗善君 李佖(1637~1693)의 『百年錄』 研究』 『서지학연구』 52 참조.

47)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청구기호: XI-4-B-45), 고려대학교 해외자료센터를 통해 전 권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동양문고 소장본과 체재가 동일한 간본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규장각에 소장된 1책[奎 2919]은 인쇄 상태가 매우 나쁘고 또 발문의 일부가 누락된 파본이다. 판목의 글자가 많이 닳은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3간본 『화담집』을 많은 사람들이 인쇄해서 읽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1〉 동양문고본 『화담집』의 구성

글의 구성	내용	비고
本文	『原理氣』 등 文과 詩	印: 碩卿, 朗善公子之章, 在山樓蒐書之一
徐花潭神道碑銘	朴民獻 작성	재간본의 마지막 내용
花潭先生集附錄	魚叔權, 許曄, 洪仁祐, 趙昱, 成渾의 글에서 간추림	
花潭先生集跋	尹孝先 작성, 跋花潭集釋菜文을 덧붙임	‘跋花潭集釋菜文’은 4간본에서 ‘祭文’, 5간본에서 ‘修文集時告文’으로 제목이 바뀌어 실림
跋文	洪靄이 작성	재간본의 발문 印: 仁興胤嗣文端外裔

이 책을 누가 언제 중간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윤희선의 발문이나 홍방의 발문에는 이 책 간행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그런데 동양문고본에 실려 있는 내용은 윤희가 작성한 『重刊本序文』에서 거론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 간본에 윤희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윤희가 간여한 편찬본과 거의 유사하다. 동양문고본은 3간본 계통의 책으로 봐도 무관하다.

동양문고본에서 윤희의 서문이 실리지 않은 사정은 분명하지 않다. 윤희가 서문은 작성했으나 간행을 못했을 수도 있고, 애초 서문을 넣어 책을 인쇄했으나 시간이 지나 새로 인쇄할 적에는 빼버렸을 수가 있다. 이 경우 후자의 상황은 윤희가 처한 정치적 입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659년 己亥禮訟 후 윤희는 서인들에게 斯文亂賊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고, 숙종 6년 이후에는 역모 죄인으로 몰려 정치적 입지를 완전히 잃고 있었다.⁴⁸⁾ 사정이 어떠하든, 동양문고본에 실린 『桃竹杖賦』, ‘서화담부록’으로 본다면, 윤희 편찬본이 간행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윤희가 『화담집』 편찬을 주도한 것은 아버지 윤희전의 유업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 윤희전은 閔純에게서 수학한 인물로, 서경덕을 그의 ‘祖師’로 높이 받들었으며, 서경덕의 도덕과 문장을 누구보다 존송했다.⁴⁹⁾ 서경덕

48) 윤희의 활동과 사상에 관해서는 정호훈, 2004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혜안 참고.

49) 『花潭集』(3간본) 花潭先生文集跋[尹孝先] “小子足及於習齋閔氏之門 閔是受業于先生者也 粗聞閔氏之所得於先生之緒論則先生寔我祖師 其景慕先生之道德文章 彌有切於他人者矣”

의 학문에 대해서도, 『역』과 『皇極經世書』에 정통한 그의 學과 數는 張載와 邵雍에 뒤지지 않는다고 높게 평가했다.⁵⁰⁾ 전쟁 후 『화담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흩어지자 윤효전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서경덕의 아들 徐應麒에게서 유고한 부를 구한 뒤 친구 閔惟淸의 손을 빌려 등사해 두었다.⁵¹⁾ 1601년(선조 34)의 일이었다. 이때 그는 이 사실을 서원에 고하기도 했는데,⁵²⁾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간행하여 보급할 생각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발문을 적은 시점에 그는 황해도 松禾 현감으로 재직 중이었고⁵³⁾ 몇 해 뒤 평안도 永柔의 현령을 지냈기 때문에 『화담집』을 중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이었다.⁵⁴⁾ 영유 현령 시절에 그는 김정국의 문집 『思齋集』⁵⁵⁾을 改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 손으로 재간행을 하지는 못했다. 윤효전은 흥방이 은산에서 재간본을 간행할 때에 영유 현령에서 正言으로 전보된 상태였는데,⁵⁶⁾ 재간본 간행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⁵⁷⁾

윤휴는 이러한 맥락 위에서,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등사 자료와 발문을 이용, 책의 간행을 돕기로 했다. 말하자면 윤휴의 『화담집』 간행은 서경덕의 학문과 연결되는 家學 전통 위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鏞의 先人은 곧 閔習靜先生(습정은 閔純의 호)에게서 수학하였고, 習靜은 또 老先生에게서 직접 수학하였으니, 오늘의 일에 대해서 휴가 실로 그 일을 돕고자 하는 바이다.⁵⁸⁾

50) 위의 글.

51) 위의 글 “兵火之餘 書籍散亡 竊以不獲見先生著述爲痛恨 間求遺稿於嗣子龍潭公則出示一冊 詩與文乃其門下朴公頤正許公太輝所哀集 而龍潭之早孤也 亦多有遺失不收者云 可勝惜哉 悼既往之不迫 圖服膺於來日 遂請同志閔公惟淸而傳寫之 愛誦而敬藏之 以爲斯文之大寶焉” 윤휴가 『花潭集重刊序』에서 말한 謄本이 이 자료이다.

52) 『花潭集』(3간본) 跋花潭集釋菜文. 이때 이 사실을 고한 서원은 송양서원으로 추측된다.

53) 『宣祖實錄』 권134, 34년 2월 25일 甲午.

54) 1602년 刑曹佐郎이 되고(『宣祖實錄』 권154, 35년 9월 16일 乙亥), 1604년에는 永柔縣令으로 재임했다(『宣祖實錄』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55) 奎3701, 一簣古819.52-G421s.

56) 『宣祖實錄』 권186, 38년 4월 4일 戊申.

57) 『宣祖實錄』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平安道御史申慄書啓曰 平壤庶尹李慶千 前爲郭山郡守時 奉公恤民 出於惻隱 今爲庶尹 闔境喜悅 如戴父母 前後治聲 爲一道第一 定州牧使金尙容 持身廉謹 永柔縣令尹孝先 殷山縣監洪雱 清謹持身 處事詳明”

3간본이 간행되면서 『화담집』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일단 서경덕이 남긴 글이 수집되어 내용이 조금 더 충실해진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더불어 서경덕과 교류하거나 그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의 글과 발언을 ‘서화담선생부록’으로 엮어 부족한 서경덕의 글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어숙권의 『稗官雜記』, 허엽의 『前言往行錄』, 홍인우의 『恥齋遺稿』, 趙昱의 『保眞菴集』, 성혼의 『牛溪集』⁵⁹⁾에서 발췌한 글과 시가 실렸다. 대체로 서경덕과 교류하거나 배운 인물들이 직접 겪은 일을 정리해서 남긴 자료라 서경덕의 체취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허엽의 글은 모두 다섯 문장이 실렸는데, 서경덕이 어렸을 때 『서경』의 ‘箕三百’의 어려운 구절을 수천 번을 읽고 자연스럽게 깨쳤다는 내용, 3년간을 주야로 먹는 것과 자는 것을 잊고 수련하다가 마침내 몸에 기혈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많아지는 병이 생기게 되자 下三道를 떠돈 후에 動靜이 모두 편안해졌다는 사실, 格物 時 만물의 이름을 써서 벽에 나열해두고 순차적으로 궁구 탐색했다는 사실 등을 기록해 두었다.⁶⁰⁾ 서경덕이 아름다운 산수를 만나면 일어나 춤을 추었다는 행동도 소개하고 있다.

홍인후 『치재유고』에 실린 ‘日錄’ 기사는 비교적 자세히 초록해 두었다. 이 자료는 본래 1538년(중종 33)부터 1554년(명종 9)까지 홍인후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둔 일기인데, 『화담집』에서는 4개 년 기사가 실렸다. 서경덕을 찾아가 『大學』을 익히는 사정, 朴淳과 교류하는 모습, 1552년(명종 7) 朴民獻에게서 『화담집』을 구해 읽고 서경덕의 “命世之才, 經世之學”에 대해 탄복하는 모습 등을 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홍인후가 서경덕이 도를 알았던 사람임을 이황에게 강변하는 내용도 실려 있다. 홍인후는 이황으로부터 서경덕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던 적이 있었다.

58) 『白湖全書』 권24, 重刊花潭集序 壬辰.

59) 『牛溪集』 권6, 雜著 雜記.

60) 허엽의 『前言往行錄』은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3간본은 이 책의 내용 일부를 보여 주는 셈이다.

퇴계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했다. “花潭은 진실로 우리 동방의 호걸스런 인재이다. 도덕의 깊이는 쉽게 거론하기 어려우나 道를 알았던 사람임은 분명하다. 어찌 그를 낮추어 볼 것인가?”⁶¹⁾

3간본 『화담집』은 서경덕 사후 출간된 초간본, 중간본의 성과를 두루 계승하는 위에서 윤희 본인이 새롭게 수집한 서경덕의 작품, 아버지 윤희전의 발문, 그리고 당대 여러 학자들의 문집에서 수집한 자료를 더하여 만들어졌다. 초·재간본이 그러했듯이 3간본 역시 서경덕의 학통을 이은 후학의 손으로 간행되었다. 거기에는 이황, 이이와는 다른 시각, 다른 방법으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유의 근원을 옹호하고 또 확장하려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태상으로도 서경덕이 쓴 글과 시를 특별한 분류 없이 그대로 배치했다. 송양 서원의 유생들과 의견을 모아 간행하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래 표는 초간에서 3간까지의 화담집의 구성이다.

〈표 2〉 간본별 『花潭集』 구성의 변화: 초간~3간

간본/구성	서문	목록	본문	기타 (권외)	부록	발문	비고
初刊	無	無	上~下	無	無	無	규장각 (古貴 819.52-Se61s,奎 1687) 등 여러 곳 소장
再刊	無	無	不分卷	신도비문	無	後識[洪霧] ⁶²⁾	- 본문 마친 후[花潭集卷終] 신도비 수록 - 刊記: 平安道殷山縣開板, 書寫曹守誠 - 규장각(한은247)
3刊	無	無	不分卷	신도비문	6종 자료 발췌	화담선생집발 [尹孝先] 跋花潭輯釋榮文 발문: 洪霧	- 본문을 마친 후[花潭集卷終] 신도비 수록 - 부록은 “화담선생집부록”으로 표기했으며, 모두 6종의 자료에서 서경덕 관련 자료 발췌 - 동양문고(XI-4-B-45)

61) 『花潭集』(3간본) 徐花潭先生附錄 “答退溪書曰 花潭誠吾東豪傑之才 道德淺深 雖未可遽論 然儘是知道人 其可小之” 원 편지는 『恥齋遺稿』 권1에 실려 있다.

62) 『花潭集』(재간본) 後識: 皇命萬曆紀元之三十二年乙巳(宣祖38, 1605)暮秋朝散大夫行殷山

3. 18세기 開城 儒生의 『화담집』 간행과 ‘洛學’

1) 영조대의 4간본 간행

『화담집』은 1770년(영조 46)에 들어와 다시 간행된다. 4간본이라 할 수 있다.⁶³⁾ 3간본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4간본은 앞서 나왔던 『화담집』의 본문은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체재를 크게 바꾸었다. 전체 3권으로 책을 구성했는데, 1권에는 賦와 詩, 2권에는 疏, 書, 雜著, 序, 銘 등을 실었다. 3권에는 年譜, 言行雜錄, 門人錄을 부록으로 담았다. 서경덕의 글을 유별로 분류하여 재배치한 이 같은 구성은 전통적인 문집 편집 방식을 크게 원용한 특징을 갖는다. 형태상, 예전 간본에 비해 진화한 모습을 4간본은 보여준다.

〈표 3〉 4간본 『화담집』의 구성

구 성	내 용		비 고
序文	元仁孫		개성 유수
권1	賦	桃竹杖賦	
	詩	辭金相國惠扇二首 외 73수	‘詩’의 마지막에 실린 送沈教授 3수는 3간본까지는 ‘送沈教授序’ 뒤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4간본에서는 詩와 文으로 분리하여 재배치했다.
권2	疏	擬上中宗大王辭職疏 외 1편	
	書	答朴枝華〈君實〉書 외 3편	
	雜著	原理氣 외 12편	
	序	送沈教授〈義〉序	
권3	銘	無玄琴銘 외 3수	
	年譜	성종 20년~영조 16년	年紀는 “皇明孝宗皇帝弘治二年”으로 시작.
	門人錄	閔純 외 24명	배향 문인 : 閔純, 朴淳, 許曄
	碑銘	有明朝鮮國 神道碑銘 並書	朴民獻 撰
	言行雜錄	이황 이하 先儒의 서경덕 평가, 화곡서원 제문, 화담 및 화담서원 방문자의 詩	
跋文	尹孝先, 洪雱, 金用謙, 尹得觀, 蔡緯河		尹得觀 : 朴弼周의 제자 蔡緯夏 : 開城 經歷

縣監洪滂謹識于後.

63) 4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3648-33-3-15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고서(III) 45630] 등에 소장되어 있다.

4간본 간행은 韓命相⁶⁴⁾ 馬之光 등 개성부 내의 유생들이 당시 개성 우수 元仁孫과 개성 경력 蔡緯夏의 힘을 빌려 이루어졌다. 尹得觀은 韓命相의 요청을 받아 발문을 썼다.⁶⁵⁾ 이들은 金用謙 편집본을 저본으로 삼아 체재를 잡고 여기에 연보와 문인록을 더하여 『화담집』을 간행했다.⁶⁶⁾ 간행지는 개성의 花谷書院이었다.⁶⁷⁾ 4간본은 3간본까지의 사정과 견주어보면 여러 면에서 특별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金用謙 편집본을 활용하여 간행한 점이다. 4간본 권1, 권2의 구성은 이 편집본을 그대로 옮긴 결과이다. 김용겸은 1752년(영조 28)에 이미 이 책의 편집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개성의 유생 金聲始가 이를 가져와 저본으로 삼았다. 김성시는 南公輓(金陵, 1760~1840)과 매우 친했고, 개성의 유명한 학자 趙有善의 친우이기도 했는데,⁶⁸⁾ 4간본 간행에 적극 참여하며 김용겸의 편집본을 구해왔던 것이다.⁶⁹⁾

김용겸이 『화담집』을 편집한 사실은 그의 가계, 그의 정치적 위치로 보면 매

64) 進士로 호가 是學齋이다(『蘿山集』 권11, 附錄, 年譜 참조). 영조 16년 영조가 개성에 들 때, 疏頭가 되어 개성의 인재들을 뽑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등, 개성 지역의 대표적인 유생이었다.

65) 윤득관은 朴弼周의 문인으로, 영조 24년에는 박필주의 시호를 청하는 상소를 이끌기도 했다(『承政院日記』 영조 24년 10월 20일 辛丑). 문집 간행 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66) 『花潭集』(4간본) 花潭先生文集重刊跋[蔡緯夏] “余來佐府 慨然思有以新其刻矣 會 金生聲始得嘽嘽齋金公用謙氏所編一本來示 余受而讀之 則序次得正 凡例儘好 眞可謂先獲我心矣 遂與府之多士 謀以付劂 更取後賢尙論之語 添載遺事中 又別爲年譜及門人錄以附之 合爲三編 其亦庶乎致精詳而壽其傳者歟”

67) 『鏤板考』에 따르면 판목도 이곳에 보관했다(『鏤板考』 권6, 集部 上 花潭集三卷 “本朝厚陵參奉文康公徐敬德撰 敬德起自鄉曲 研窮理數之學 李滉謂近異學 故後世方術之士 得以藉口 然以集觀之 殊平正無異 滉之言 蓋猶叔程之論邵子也 集有二本 舊本不知誰編 清四庫全書 載之別集類 今刻本 金用謙訂定 附碑銘年譜及言行雜錄 開城府花谷書院藏 印紙二牒九張”).

68) 『蘿山集』 권2, 上文菴李先生 “憑金友聲始伏聞徧遊眞界 仁智養德 伏讀詩語 蓋可想象”

69) 김성시가 이 편집본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4간본을 간행하던 영조 46년, 김성시는 아직 김용겸을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겸을 참판으로 부르던 시절, 남공철은 김성시가 김용겸에게 찾아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金陵集』 권10, 上金參判用謙). 김용겸이 공조참판이 된 때가 정조 2년이었으므로(『正祖實錄』 권5, 2년 1월 21일 壬午), 김용겸과 김성시가 만난 시점은 적어도 정조 2년 이후가 된다.

우 특이하다.⁷⁰⁾ 그의 고조부는 金尙憲, 백부는 金昌集, 중부와 숙부는 金昌協, 金昌翕이다. 아버지 金昌緝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며, 말년에 『주역』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⁷¹⁾ 18세기 洛學의 종장 金元行은 나이는 같지만 조카가 된다. 김용겸은 김창집이 1722년(경종 2) 역모 혐의로 죽음을 당하자 자신도 연루되어 4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⁷²⁾ 말하자면 김용겸은 18세기 안동 김문의 주요 구성원으로 철두철미 노론 가문에서 성장했으며, 서경덕의 학통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김용겸이 『화담집』에 관심을 기울인 사정은 뚜렷하지 않다. 중부와 숙부 김창협·김창흡이 ‘天機’를 중시하고⁷³⁾ 아버지 김창집이 『주역』에 심취했던 만년의 그 분위기가 김용겸의 사유에 이어졌는지 모를 일이지만,⁷⁴⁾ 그의 개인적 학술 취향과 연관하여 추론해 볼 여지는 많다. 그는 諸父나 조카 김원행과는 성향을 달리하여 理氣心性論에는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영역은 상수학, 역학, 천문역산학 등이었다. 평소 樂律을 좋아했으며,⁷⁵⁾ 박학하고 典據에 밝다고 평가 받았다. ‘經世’의 學 또한 중시했다.

70) 김용겸의 생애, 활동,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조창록, 2004 『조선조 開城의 학풍과 徐命膺家の 학문』, 『大東文化研究』 47; 김호, 2007 『朝鮮後期 洛論의 역사적 전개: 최한기 氣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畿甸文化研究』 35; 박현순, 2013 『지방 지식인 黃胤錫과 京華士族의 교유』, 『韓國史研究』 163; 오수경, 2013 『연암그룹연구』(수정증보판), 월인 참조.

71) 『圃陰集』附錄 年譜 “(壬辰 先生年五十一) 先生自近歲留心周易 至是以江居靜寂 專意諷讀 玩心高明 有自得之樂 日臻於昭曠 上叔氏三淵先生書 報以手舞足蹈 三淵先生稱其所聞之灑落焉”

72) 『承政院日記』英祖 1년 3월 6일 甲辰.

73) 김창협·김창흡의 사유세계와 ‘天機’ 관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성산, 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34-240면. ‘천기’ 관념은 소옹 사유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유의 하나이다(李俸珪, 1988 『邵雍哲學을 形成하는 道家的 思惟와 儒家的 思惟』,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서경덕 또한 이를 중시하여 詩 『天機』를 지었다. 김창협·김창흡 등은 ‘천기’ 관념을 매개로 서경덕의 학문과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74) 김용겸의 가문은 개성과 인연이 깊었다. 두드러진 점은 김용겸의 고조부 金尙憲이 崇陽書院에 配享된 점이다. 김상헌의 배향 연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영조 2년에는 이미 金增, 趙翼 등과 함께 배향되어 있었다(『承政院日記』英祖 2년 5월 6일 丁酉 “松都有崧陽書院 卽高麗文忠公鄭夢周俎豆之所 而先正臣文正公金尙憲 故相臣文貞公金增 文孝公趙翼 曾尹是邦 恤民振學之惠 入居民之追思 配享于此 以寓章甫之尊慕”).

75) 『研經齋集』 권18, 文二〇題後 題丹室閔公玉簫詩後 “嘒嘒齋金公素好樂律”

유형원의 『磻溪隨錄』을 애호하여 필사해두고 즐겨 본 것도 그 한 모습이었다.⁷⁶⁾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도 대체로 이러한 성향을 보였다. 현 연구자들은 그를 ‘燕巖 그룹’의 중요 일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 그였기에 상수학의 영역에서 독특한 사유 세계를 개척한 서경덕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다. 김용겸은 세상 사람들이 서경덕을 상수학에 편중했다고 하여 醇儒로서 대우하지 않지만, 그의 학문에는 고루한 유자들은 이해 못할 깊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가 『화담집』을 새롭게 편집한 이유는 서경덕의 사상을 널리 유포하기 위해서였다.

화담 서선생은 타고난 자질과 성품이 영민하고 총명하여 天人을 배우고 궁구했으니, 우리 동방의 邵堯夫이다. 다만 그가 지은 저술은 많지 않아 겨우 문집 1책만이 세상에 유통된다. 이 零星한 문자로는 선생을 온전히 알 수 없거니와 또 그 편집이 질서가 없고 판본은 매우 어지러워 규모를 갖추지 못했으니 더욱 애석하다. 용겸은 능력도 살피지 않은 채 편차를 고치고 정돈, 새 편집본을 만들어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음미하려고 했다. 또 조만간 여건이 허락하면 목판에 새겨 세상에 유포하려고 한다. 오호, 세상의 儒者들은 선생의 학문이 ‘象數’ 일변에 편중된 것을 병통으로 여기고 ‘醇儒’로서 대접하지 않는다. 선생이 師承을 거치지 않고 은미한 도를 깊이 탐색하여 상식적이며 모방을 일삼는 자들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고루한 세상의 유자들이 그 어찌 선생의 깊고 깊은 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인가?⁷⁷⁾

年譜와 門人錄을 작성하여 부록으로 붙인 점 또한 4간본의 특징이다. 연보에는 서경덕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1740년(영조 16) 영조가 화곡서원에 禮官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낸 사실까지 적혀 있다. 문인록에는 서경덕 제자 25명의 행적이 간단히 정리되었다. 민순·허엽·박순·홍인후와 같은 타 지역 출신의 제자들, 馬慶羲·金漢傑 등 개성 지역 제자들이 같이 실렸다.

연보와 문인록은 개성 유생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욕구, 욕망의 산물로 판단된다.⁷⁸⁾ 이 두 자료를 『화담집』에 수록하는 일은 서경덕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76) 『近齋集』 권31, 嘯嘯齋金公遺事 “公學術博洽 於書無所不覽 最好禮書 少日讀儀禮通解 并小註誦之 又留心經濟 愛柳磻溪隨錄 手寫以觀”

77) 『花潭集』(4간본) 花潭先生文集跋[金用謙].

그의 학문에 영향을 받은 문인 집단을 조선 학계에 공론화하는 일에 다른 아니었다. 그것은 서경덕의 생애와 학문, 서경덕 학파의 위상을 조선 사상사 상에 위치시키자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제 서경덕의 문인은 이 책을 통하여 공認되었고, 문인과 연관이 있는 후손들은 『화담집』의 권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화담집』은 개성의 유생들을 결속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다.

한편 4간본에서는 화곡서원이 서경덕 학문을 이어가는 중심 공간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言行雜錄’에서 서경덕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더불어 화곡서원의 운영에 대한 자료를 대거 실고 있는 점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표 3〉 참조). 3간본의 간행 공간이 송양서원이었던 점과 대비된다.

연보와 문인록 편찬에서 드러나는 개성 유생들의 집단적 의식은 조선 학계에서 서경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부록으로 묶은 데서도 확인된다. 4간본의 편찬자들은 서경덕에 대한 학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활용, 서경덕의 학문적 성격과 학술적 위상을 크게 드러내려 했다. 부록에 실린 ‘언행잡록’⁷⁹⁾은 그 자료집이었다. 이미 3간본에서도 이 일은 시도되었지만, 4간본에서의 내용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⁸⁰⁾ 여기에는 李滉, 朴淳, 李珥, 柳希春, 申欽, 李植, 鄭述, 洪履祥, 趙憲 등 쟁쟁한 인물들의 글이 실렸는데, 비율로는 서인계 학자의 언명이 많다. 독자들은 부록의 자료를 통해, 서경덕의 『皇極經世書』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 개척한 결과였으며,⁸¹⁾ 장재의 ‘淸虛一大’의 논의에서 보이는 미진

78) 이 내용은 김용겸 편집본을 저본으로 4간본을 편찬한 개성의 유생들이 정리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김용겸의 발문에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79) ‘언행잡록’은 서경덕의 학문과 삶에 대한 조선 학계의 평가, 서원의 운영 등 두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간본에 실린 부록의 내용은 일부 계승했지만 전면 개편되었다. 3간본에 비해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다. 특히 서경덕의 학문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발언을 적극 수록하려고 했다.

80) 4간본에서는 『恥齋日錄』, 『牛溪集』 등 3간본의 부록에 실린 글은 대체로 받아들였다. 다만 다섯 문장이나 실렸던 허엽의 발언은 “화담이 아름다운 산수를 만나면 일어나 춤을 췄다(花潭遇山水佳處, 輒起舞)”, “閑箕가 화담을 眞儒正脈으로 추존했다(花潭眉宇明快, 眼若曙星. 每侍坐, 必稱閑參判箕景說公, 景說公常推尊花潭, 以爲眞儒正脈)”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만 남기고 제거했다. 4간본 편찬자들이 허엽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 점을 서경덕이 극론했고,⁸²⁾ 서경덕의 학문은 성현의 말에 의존하여 모방하는 다른 학자들에 비해 自得의 묘가 있으며 문자 언어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⁸³⁾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4간본의 편찬자들이 소개한 여러 학자의 글이 긍정 일변도만은 않았다. 서경덕의 약점 또한 가감 없이 실려 있어 독자들은 이를 그대로 접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이황, 이이의 서경덕에 대한 발언이 그것이다. 이황은 서경덕이 邵雍·張載·程頤·朱熹의 학문을 겹했다는 허엽의 발언을 妄言이라 극언한 적이 있었다.⁸⁴⁾ 이이도 ‘一氣長存’에 대한 서경덕의 생각은 ‘氣를 理로 인식하는 병통’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하고,⁸⁵⁾ 또 ‘퇴계의 학문은 依樣의 맛이 있고 서경덕은 자득의 맛이 있지만 차라리 퇴계의 모방하는 태도를 취할지언정 반드시 화담의 자득하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된다’⁸⁶⁾고도 한 적이 있었다. 두 학자의 발언은 가감 없이 부록에 그대로 실렸다.

개성의 유생과 개성 유수부가 힘을 합쳐 『화담집』을 간행한 사실은 전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모습이다. 앞서 살핀 대로 3간본을 낼 때까지, 서경덕과 학통으로 직접 연결되는 인물들이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개성 유수부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했다.⁸⁷⁾ 이제 4간본을 간행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개성의 유생

81) 『花潭集』(4간본) 권3, 言行雜錄 “皇極經世數解者 乃徐處士花潭君所著也 似聞此人不見釋義等書 而自窮到 此亦一奇事 第未知果合邵老本數與未也 <出李退溪滉文集>”

82) 위의 글 “張子所論清虛一大 此窮源反本 前聖所未發也 花潭又推張子之未盡言者 極言竭論 可謂極高明也 <出朴思庵淳文集>”

83) 위의 글 “李珥曰 此工夫固非學者所當法 敬德之學 出於橫渠 其所著書 若謂之膾合聖賢之旨則臣不知也 但世之所謂學者 只依倣聖賢之說以爲言 中心多無所得 敬德則深思遠詣 多有自得之妙 非文字言語之學也 <出李栗谷珥經筵日記>”

84) 위의 글 “先是曄謂李滉曰 花潭可比橫渠 滉曰花潭所著何書可比正蒙 何書可比西東銘 曄無語 至是 誇張益甚 至以爲兼邵張程朱之學 可謂不知而妄言耳 <出李栗谷珥經筵日記>”

85) 위의 글 “理無變而氣有變 元氣生生不息 往者過 來者續而已往之氣 已無所在 而花潭則以爲一氣長存 往者不過 來者不續 此花潭所以有認氣爲理之病也 <出栗谷別集>”

86) 위의 글 “惟退溪攻破之說 深中其病 可以救後學之誤見也 蓋退溪多依樣之味 故其言拘而謹 花潭多自得之味 故其言樂而放 謹故少失 放故多失 寧爲退溪之依樣 不必效花潭之自得也 <出栗谷別集>”

87) 『花潭集』 간행 때 개성부에서의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서는 일단 개성 유수, 개성 경력이 간행에 의견을 내고 문집의 서문을 쓴 사실을 지원으

집단이 우수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개성 우수부 역시 유생들의 요구를 배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⁸⁸⁾

이와 같이 4간본에 이르러 『화담집』은 구성상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洛學의 분위기 속에 성장하던 김용겸의 학문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삼고 개성 유생과 개성 우수부가 힘을 합쳐 만든 결과였다. 여기에는 서경덕 사상에 대한 서울 지역 한 학자의 재평가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서경덕을 개성 지역 사상과 학술의 淵源으로 세우고 이를 확장하려는 개성 유생들의 열망 또한 가로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조대의 5간본 간행과 그 의미

1787년(정조 11), 다시 5간본이 간행되었다. 1770년(영조 46)의 4간본 이후 20년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목활자를 이용하여 간행했으므로, 목판본에 비해 경비가 덜 들고 또 작업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간행에는 趙有善, 馬之光 등 개성의 유생이 참여하고 개성 우수 尹塾⁸⁹⁾이 힘을 보탰다. 마지막은 4간본 간행 때도 활동했던 인물이다. 4간본이 있는데도 굳이 다시 간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5간본 편찬자들은 4간본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간본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었다. 4간본에 비해 1권이 더 늘어났는데, 1권과 2권은 4간본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다. 부록은 세분하여 권3, 권4의 두 권으로 만들었다. 권3에는 연보, 신도비명, 遺事를 싣고 권4에는 송양서원과 화담서원 자료[致祭文 및 서원 건축 당시의 상량문], 화담과 화곡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이

로 표현했다.

88) 이 글에서는 18세기 개성 학계의 지형을 조감하지 않고, ‘개성 유생’으로 뭉뚱그려 표현했다. 『화담집』 간행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개성의 모든 유생들이 『화담집』 중간을 희망했을까 하는 점이다. 『화담집』 간행에 관심을 갖지 않는 유생들도 존재했을 수 있다. 면밀히 살펴야 할 사항이다. 『화담집』 간행에 개성 우수의 개인 성향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89) 尹塾은 1762년 ‘壬午禍變’ 때 사도세자의 처형을 극렬히 반대하다 벌을 받았으며, 정조대 들어와서는 대사성, 도승지 등 주요 관직을 맡았다.

기념으로 남긴 시, 문인록을 실었다. 권4의 서원 관련 자료가 첨가되고, 개성의 화담과 화담서원을 찾은 문인들이 남긴 글들이 대거 보완됨 점이 눈에 띈다. 4간본과 5간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간본별 『화담집』 구성: 4간본~5간본

간본\구성	서문	목록	본문	부록	발문	비고
4刊本	序:元仁孫	無	권1~권3	권3	尹孝先 洪靄 金用謙 尹得觀 蔡緯夏	김용겸 편집본에 몇 사항 첨가 권3: 부록 年譜, 門人錄, 碑銘, 言行雜錄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古3648-33-3-159) 외
5刊本	序:元仁孫 重刊序:尹塾	有	권1~권4	권4	尹孝先 洪靄 金用謙 尹得觀 蔡緯夏	권3: 부록1 年譜, 神道碑銘, 遺事 권4: 부록2 書院致祭文, 書院 重建上樑文, 학자들의 화담 방문 詩 門人錄

5간본에 실린 내용은 4간본에 비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몇 곳에서 변화가 생겼다. 권1, 권2에서는 시의 제목이 일부 바뀌고, 시 구절에 대한 異本の 표기를 소개했다. 4간본에서의 「開窓吟」과 「有物吟」은 각기 「開窓」과 「有物」로 바뀌었다. 두 시의 제목은 1간본부터 4간본까지 그대로였음에도 5간본에서 바뀐 것은 특이하다. 「次靈通寺板上韻」의 경우, 『明詩綜』에 실린 본문과의 차이를 夾註로 드러내 표기했다.⁹⁰⁾ 중국의 자료를 활용하는 모습이 새롭다. 권3의 잡저에 실린 「鬼神死生論」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4간본에서 ‘淡—淸虛’로 표기했던 것을 ‘湛—淸虛’로 바꾸었다. 氣의 성격을 표현한 이 구절은 초간본부터 계속 ‘淡—淸虛’로 새겨져 있었는데, 5간본에서 와서 비로소 바뀐 것이다.⁹¹⁾ 張載의 사유에서 氣의 특성은 ‘湛—淸虛’로 표현되고 있었으므로, 장재의 사상에 영향 받은 서경덕 또한 그렇게 이해하고 표기했던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90) 『花潭集』(5간본) 권2, 次靈通寺板上韻<明詩綜, 泉絃千曲咽 作泉流三面轉. 簇作色, 間作枯>

91) 이 사실은 서울대 철학과 丁垣在 교수의 도움을 얻어 확인 했다. 여기에 밝혀 고마움을 표한다.

年譜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우선 年紀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4간본에서는 명 황제의 廟號와 年號를 먼저 적고, 夾註로 조선 국왕이 廟號·尊號와 年紀를 표시했다. 5간본에서는 조선 국왕의 묘호와 연기를 먼저 적고 협주로 중국의 연호를 적었다. 명 황제의 묘호는 생략했다.

4간본 : 皇明孝宗皇帝洪治二年〈本朝 成宗康靖大王二十年〉己酉

5간본 : 成宗大王二十年 己酉〈弘治二年〉

중국의 정치적 시간을 우선하는 4간본의 연기 표기 방식은 이 시기 편찬되는 문집에서는 일반적이었다. 5간본의 표기법은 그런 점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5간본의 중요한 특색을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서술 방식도 바뀌었다. 4간본에서는 綱目體 형식을 활용, 연도별로 주요한 내용을 압축하여 기술하고 관련 사실을 협주로 부연하여 설명했다. 5간본에서는 강목형 서술을 풀고 한 문장으로 엮어 설명했다. 아래 내용은 증증 39년[1544], 서경덕 56세 때의 기사이다. 〈〉 안은 협주이다.

4간본 : 先生五十六歲 除厚陵參奉〈大提學金公安國, 及館中儒生相繼薦引, 故有是命 辭不就〉○冬, 恭僖大王昇遐, 服齊衰三月〈國制, 儒生無服, 只白衣冠三年. 先生曰, 君父之喪, 安可無服, 乃依古禮, 服齊衰三月.〉○著原理氣等說〈時, 先生得病, 幾至不救, 曰, 聖賢之言已經先儒註釋者, 不必更爲疊床之語. 其未說破者, 欲爲之著書. 今病亟如是, 不可無傳. 乃草原理氣, 理氣, 太虛說, 鬼神死生論等四篇.〉

5간본 : 先生五十六歲 除厚陵參奉 不就. ○冬, 中宗大王昇遐, 國制, 儒生無服, 只白衣冠三年. 先生曰, 君父之喪, 安可無服, 乃依古禮, 服齊衰三月. ○先生寢疾久, 乃曰, 聖賢之言已經先儒註釋者, 不必更爲疊床之語. 其未說破者, 欲爲之著書. 今病亟如是, 不可無傳. 乃草原理氣, 理氣, 太虛說, 鬼神死生論等四篇.

연보의 내용 또한 일부 보완되었다. 서경덕의 학문적 지위, 정치적 주장을 드러내는 일들이 새로 들어갔다. 우선, 57세 때 일어났던 仁宗 喪에 입을 상복을 古制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상소문을 축약하여 길게 실었다.⁹²⁾ 본문에 상소

92) 연보 57세조의 기사이다. 5간본의 밑줄은 증보된 내용이다.

문이 실려 있기에 연보의 기사는 중복된다는 느낌도 들지만, 5간본 편집자들은 핵심을 축약하여 그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선조 6년 개성 유수 南應雲, 개성 經歷 成壽益이 정몽주의 옛집에 사당을 세우고 서경덕을 배향한 사실,⁹³⁾ 광해군 6년 경기 유생 金檀 등이 서경덕을 문묘에 종사하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이항복이 여기에 의견을 낸 사실⁹⁴⁾이 새로 실렸다.

문인록 또한 소소하지만 변화가 생겼다.⁹⁵⁾ 대체로 4간본에서의 서술은 그대로 계승하되, 사실 일부를 보완하였다. 馬義慶의 경우 生員이며 『주역』과 『성리대전』과 같은 책을 더욱 좋아했다는 점⁹⁶⁾을, 姜文佑는 화담으로 서경덕을 찾아보였다는 점⁹⁷⁾을 첨가했다. 또 李仲虎에 대해서는 그가 “己卯土禍 후 師道를 자임했다.”고 한 구절에서 ‘기묘사화’는 삭제한 뒤, 서경덕이 그와 몇 일간 禮를 논하고 나서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탄식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⁹⁸⁾ 한편 이와는 반

4간본 : 春, 草疏極論國恤喪制不古之失.<國制, 卒哭後, 君臣皆玄冠視事, 先生以爲不合古制, 乃引禮經之說, 請加釐正. 疏成而不果上. 人莫曉其意. 或言孝陵方在諒闇過哀, 將有漠測之禍也.>

5간본 : 時, 大喪服制, 不用衰辟之法. 卒哭後, 又皆玄冠視事. 先生以爲不合古制, 乃引禮經之說, 草疏極論, 請加釐正. 其略曰, 聖人, 取象於天, 觀法於地, 制上下衣裳之度, 裁衰適負版之數, 寓哀摧斬絕之容, 皆有深意. 今皆埽之, 只用長布之衣, 有同庶人喪服之規. 又曰, 卒哭纔過, 君臣皆玄冠視事, 是不以喪禮自處也. 夫何思何慮, 從聖人之訓, 遵聖王之法, 如斯而已矣. 初終, 素弁經, 成服, 斬衰三升冠六升. 既卒哭, 成布六升冠七升, 服葛經視事則君臣素弁環經, 如此, 豈非順乎. 又曰, 聖人制五服, 自士以上群臣, 服斬衰三年. 庶人及庶人在官者, 應服齊衰三月, 而今降齊衰之重, 而爲弔服白衣, 引三月之輕, 置之三年之久, 皆不揣情文輕重之倫. 未又論山陵事. 疏成不果上.

93) 『花潭集』(5간본) 年譜 “開城留守南應雲 經歷成壽益 卽鄭文忠舊宅 立祠祀之 以先生配享”

94) 위의 글 “京圻儒生金檀等 上疏請從祀文廟 命收議于大臣 李相恒福獻議以五賢從祀時不爲竝舉 爲未解 事遂寢 此事 年條未詳 姑附于此”

95) 수록된 문인의 수는 그대로다. 4간본에서 여러 자료를 섭렵하여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96) 4간본 : 馬義慶 字仲積 號竹溪 木川人 栗谷在東銓 舉孝廉 除參奉 謝恩卽歸 不仕 師事先生 潛心經學.

5간본 : 馬義慶 字仲積 號竹溪 木川人 生員 師事先生 潛心經學 尤好周易 性理大全等書 栗谷在東銓 舉孝廉 除參奉 謝恩卽歸 不仕.

97) 4간본 : 姜文佑 字汝翼 晉州人 文科校理 乃庶類也.

5간본 : 姜文佑 字汝翼 晉州人 文科校理 乃庶類也 嘗謁先生于潭上.

98) 4간본 : 李仲虎 字風后 號履素齋 己卯土禍後 以師道自任 樞衣受業者日數百人.

대로 李均, 黃元孫 두 庶人 제자에 대한 4간본의 기록 일부를 삭제했다. 4간본에서 이 두 제자와 서경덕의 인연을 소개한 뒤, 『清江集』의 기사를 빌어, “松京의 市인들이 화담을 모신 뒤에 그 생업을 버리고 매우 돈독하게 서경덕을 존모했다.”고 기술했었다.⁹⁹⁾ 5간본에서는 이를 빼버렸다. 시인은 시전 상인 곧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제자는 서경덕에게 겨울 옷을 선물하기도 했었다.¹⁰⁰⁾ 이 기사로 본다면, 개성의 상인들 가운데 일부가 서경덕에게 배우고 또 그의 생활을 후원하기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5간본에서의 기사 삭제는 전거가 불충분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서경덕과 상인과의 상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5간본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권3의 ‘遺事’, 권4의 치제문, 상량문, 花潭을 방문한 학자들이 남긴 詩¹⁰¹⁾ 등에 나타난다. 실려 있는 자료 모두 4간본에 비해 분량이 늘어났고 배치 방식에서 개성을 보인다. 치제문·상량문은 송양서원과 화곡서원 두 서원 관련 문서를 두루 포괄하여 실었고,¹⁰²⁾ 화담을 찾은 학자들의 시문은 30편을 넘겼다. 4간본과 마찬가지로, 서경덕의 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학자의 마음과 시선을 통해 서경덕을 推獎하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4간본에 없던 ‘송양서원’ 자료가 등장한 점이 새롭다.¹⁰³⁾ ‘遺事’는 5간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

‘유사’는 4간본의 ‘언행잡록’에 해당한다. 편찬자들은 4간본에 실려 있는 조선

5간본 : 李仲虎 字風后 號履素齋 孝寧大君之後 以師道自任 樞衣受業者日數百人 先生嘗與論禮數日 歎曰 不可及也.

99) 『花潭集』(4간본) 권3, 부록 문인록 7ㄱ “清江集云 松都市人得侍花潭 遂棄其業而慕之甚篤” 이 기사는 편찬자들의 말과 달리 『清江集』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00) 『花潭集』(4간본) 권1, 謝二生 <李均黃元孫> 贈衣 <庚子臘下弦>.

101) 4간본에는 모두 12명이 남긴 시문이 실렸으나 5간본에는 이들을 포함 모두 30명으로 확대되었다.

102) 『花潭集』(5간본), 권3, 花谷書院 賜祭文 癸酉; 花谷書院 賜祭文 庚申; 崧陽書院 賜祭文 略; 花谷書院春秋享祝文 崇陽書院享祝同; 花谷書院祠宇重建上樑文; 修文集時告文; 崧陽書院祠宇 重建上樑文 略; 從祀文廟議.

103) 이는 5간본 간행을 주도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조유선이 송양서원 또한 중시했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송양서원은 18·19세기 개성 학계의 중심 공간 역할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관범, 2014 『조선후기 開城의 儒學 전통』 『韓國文化』 66, 319면 참조.

학자들의 서경덕 평가를 그대로 실었다. 이에 더하여 『海東名臣錄』, 『己卯名賢錄』, 『東儒錄』, 『明詩綜』 등의 자료, 송시열과 박세채의 발언 등 새로운 내용을 더하기도 했다. '유사' 편집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조선 사상의 역사 속에서 서경덕의 위상을 적극 드러내고자 하는 점이었다. 이는 『海東名臣錄』, 『己卯名賢錄』, 『東儒錄』, 『明詩綜』 등 역대 인물록의 성격을 가진 책에서 정리된 서경덕을 '유사' 제일 앞부분에서 소개하는 데서 이를 볼 수 있다. 한편 편찬자들은 4간본에 보이던 서경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모두 삭제, 그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려 했다. 앞서 소개한 바, 이황과 이이의 부정적인 발언들¹⁰⁴⁾ 그리고 “退陶는 성현의 말씀을 준수하고 실행하는 사람 같으나 그가 스스로 발견한 곳이 있음을 볼 수 없으며, 花潭은 자기의 견해는 있으나 한 구석만 본 자”¹⁰⁵⁾라는 이이의 평가는 수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5간본은 4간본의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변화를 도모했는데, 4간본에서 서경덕의 학문을 '상수학'과 연관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면 5간본에서는 이점을 덜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서경덕에 대한 학계의 부정적인 평가는 많이 지우려고 했다. 5간본에서는 4간본에 보이지 않던 송양서원 관련 자료도 많이 실었다. 화곡서원이 서경덕의 主享 공간이지만 송양서원 또한 서경덕과 연관이 많다는 어떤 의식을 읽을 수 있다. 5간본의 편찬자들에게 “서경덕은 도를 지키고 학문을 독실하게 한 近代 儒林의 징표”¹⁰⁶⁾라 했던 洪履祥의 과거 발언은 단지 지나간 시간 속에서의 평가만은 아니었다.

5간본은 4간본과 마찬가지로 개성 출신 유생들이 개성 유수의 힘을 빌려 간행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趙有善(1731~1809)이었다. 그는 간행 당시 개성의 分敎官으로 근무¹⁰⁷⁾하며 실질적으로 5간본 간행을 이끌었다. 개성의 유생들

104) 앞의 주) 84~86 참조.

105) 『花潭集』(4간본) 권3, 言行雜錄 “退陶似遵行聖賢言語者 而不見其有自見處 花潭則有所見 而見其一隅者也〈出栗谷別集〉”

106) 『花潭集』(5간본) 권3, 遺事 “花潭徐敬德 守道篤學 爲近代儒林之表 近來京中士大夫與本府諸生 通議合力 於花潭上 新建院宇 〈出洪慕堂履祥請賜院僕啓〉”

107) 정조 7년에 교관에 임명되어(『承政院日記』 정조 7년 8월 4일 癸亥 “開城府分敎官趙有善單付”) 정조 12년에 惠陵 參奉이 될 때까지 근무했다(『承政院日記』 정조 12년 6월 20일 辛亥 “趙有善爲惠陵參奉”).

과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교정했으며,¹⁰⁸⁾ 유수 윤숙에게 문집 간행을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그의 아들 綱溫도 5간본 간행을 옆에서 도왔다.¹⁰⁹⁾ 5간본의 개성은 무엇보다 조유선이 주도하여 간행한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조유선의 5간본 간행 노력은 조유선의 학문적 정치적 위상, 나아가 그의 학문적 야심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조유선은 처음에는 文菴 李宜哲에게 배우다가 23세 되던 해 양주 석실의 金元行을 찾아가 성리학을 익혔다.¹¹⁰⁾ 이 과정에서 그는 개성 지역 인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는데, 洪直弼은 훗날 그를 두고 ‘西京數百年來一人’¹¹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유선의 힘은 김원행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 데서 나왔다. 김원행은 그에게 『朱子大全』과 『朱子語類』를 이용하여 『考亭遺事』 및 『師友淵源錄』을 정리하라는 과제를 주어 그를 단련시키고,¹¹²⁾ 또 洛學의 蘊奧를 그에게 전수했다. 조유선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부터 주자학, 洛學의 본령을 익힐 수 있었다.¹¹³⁾

조유선은 개성 학계를 金元行과 연결하기도 했다. 그가 38세 되던 해(1768, 영

108) 『蘿山集』 권11, 附錄 年譜 “丁未 先生五十七歲 二月重刊花潭集 本集年久散漫 先生手自校讐 正其訛誤 續成其年譜 又採取遺事之雜出諸集者 以爲附錄 而鳩財刊行”

109) 『蘿山集』 권4, 與綱溫 丁未 “花潭集重刊之役 幸已始手 而所在木字不甚勝 舊本附錄 亦未及釐正 不免急遞草孿 爲可恨也 其門人錄在東儒師友錄中 往請注谷 借得謄送爲好”

110) 조유선과 김원행의 첫 만남은 1753년(영조 29) 김원행이 조유선이 공부하던 서당을 찾아와 이루어졌다. 이후 조유선이 漢上으로 김원행을 찾아가 그의 문하에 입문했다(『蘿山集』 권11, 附錄 年譜 “癸酉 先生二十三歲六月 漢湖金文敬先生歷宿書堂 時漢湖先生杖履西游歷臨 歸路又臨設講會 手書觀善齋扁額 時又多手筆 藏于家 是夏往拜文敬先生于漢上 遂師事之 自是出入門下 講明斯道 後不能盡記”).

111) 『蘿山集』 권12, 附錄 墓誌銘 並序[梅山洪直弼撰].

112) 『蘿山集』 권11, 附錄 年譜 “辛卯 先生四十一歲 二月 考亭遺事及師友淵源錄草本成 以漢湖先生命 採取大全及語類中緊要事實 哀輯爲遺事 其爲學要語 體道工程 進德氣象 極其纖悉 且淵源錄廣攷無漏 冊旣成 納于丈席 未及證正 遽遭安放之痛焉 後三山公將欲校讐 而原冊見失 草本取去 而又未幾公亦下世 兩本俱失焉”

113) 홍직필은 그를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梅山集』 권42, 蘿山趙公墓誌銘 并序 “金文敬先生講道漢湖之上 四方及門之士 於斯爲盛 賢愚隨材 皆獲其益 而有若蘿山趙公 其出類而傑然者乎”, “夫故都之學 肇自圃隱 迄于花潭 而花潭有見于數 而未達理之全體 及公作而踐述漢湖之正傳 服習考亭之眞詮 門路旣的 進修彌篤 至老慥慥 克底於有成”

조 44) 김원행에게 崇陽書院의 원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김원행은 그 요청을 수용, 이항과 이이의 院規를 활용하여 강규를 작성하고 講會節目 수십조를 제정하여 학습 분위기를 만들었다.¹¹⁴⁾ 조유선은 이때 송양서원에서 유생을 모아 강학을 이끌었다.¹¹⁵⁾

김원행을 통하여 洛學을 익히고 서울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학문 세계를 접하던 조유선은 자신의 학문 활동이 개성의 학문과 문화 전통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가 파악하는 개성의 학문은 서경덕에게서 창도되어 竹溪 馬義慶, 頤齋 車軾, 市隱 韓舜繼, 認齋 金玄度, 西村 李慶昌 등과 같은 개성의 학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¹¹⁶⁾ 개성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던 조유선에게 자신이 그 학문 세계를 계승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책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유선은 자신의 방식으로 서경덕의 학문을 정리하며 학문의 방향을 세웠다. 象數學이니 數學이니 邵雍의 학문을 이었다는 등 서경덕의 학문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조유선은 극구 비켜가고자 했다. 그가 보기에 서경덕 학문의 종지는 數學이 아니었다. 민순이나 박순과 같은 제자들의 학문도 수학이 아니며, 개성에서 자란 西村 李慶昌, 新湖 許增과 같은 인물도 주역의 卦爻, 서경의 閏法 등에 관한 글을 썼지만 수학으로 자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요컨대, 서경덕 학문은 혹 정주학과 다른 점이 있지만, 後生 末學이 감히 논의할 수 없는 깊

114) 『松京志』 권4, 24ㄴ.

115) 『蘿山集』 권11, 附錄 年譜 “戊子 先生三十八歲 秋 以圃隱先生影幀模本有司往龍仁 時崧陽書院所奉影幀 年久渝敗 監察許公坪發論改模 先生往模忠烈書院影本陪來 請崧陽院長于溪湖先生 溪湖先生許之 且曰圃隱先生爲東方理學之祖 而本院無講會可恨 先生依教與多士設講 遂纂定儀節 每月十六日設講 書則自小學至四子三經 循環不已 至今不廢焉”

116) 『蘿山集』 권3, 答洪伯應 癸亥 “弊鄉人士 自國初枳錮之後 不得齒於世 進取之意隨以怠焉 不復以遠大自期 (중략) 學行則花潭後有馬竹溪義慶 車頤齋軾 韓市隱舜繼 金認齋玄度 李西村慶昌 或親炙或私淑 其學識行誼 皆可以祭於社 而不免於湮沒無傳 在朝家崇儒之道 或恐爲欠典也” 조유선은 이러한 생각 위에서 화곡서원 옆에 개성 출신의 네 학자의 別廟를 세웠다(『蘿山集』 권7, 書鄉賢四先生行錄後: 『蘿山集』 권10, 四賢別廟上樑文). 19세기 개성 지역에서는 개성 유학자를 향사하는 사우가 대거 만들어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노관범, 앞의 논문, 320-321면). 조유선의 움직임은 그러한 변화의 기미를 드러내 보이는 징후로 여겨진다.

이를 지니고 있었다.¹¹⁷⁾

서경덕의 학문을 중시하면서도 그의 학문은 수학이 아니며 그에 연원하는 후학들의 학문도 수학이 아니라는 조유선의 판단과 강변은 그의 딜레마였겠지만, 한편으로는 개성의 학계가 보다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치루어야 할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¹¹⁸⁾ 조유선의 생각으로 본다면, 서경덕의 학문은 그다지 흠결이 많지 않았다. 그의 학문을 잇는 개성의 학계는 주자학-낙학의 새로운 물결 위에서 성장할 터였다. 홍직필은 조유선을 두고, 故都 개성의 학문을 계승하면서도 그 부족한 점을 金元行의 正傳과 주자의 眞詮을 통하여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평가했는데,¹¹⁹⁾ 이는 조유선의 문제 의식, 학술 방향을 예리하게 포착한 결과라 하겠다.

4간본 『화담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조유선이 그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고 보완하며 5간본을 만든 데에는 그러한 열망, 방향 의식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점은 김용겸의 편집본을 활용하여 만든 4간본이 갖지 못하는 요소였다.

4. 맺음말

『화담집』은 서경덕 사후 처음 나온 이래 18세기 말까지 모두 다섯 번 간행되었다. 간본마다 개성을 지니어 구성 방식, 수록 내용, 간행지, 간행 주체 등이 매

117) 『蘿山集』 권3, 答洪伯應 癸亥 “花潭之學 以見於文集者言之 固可謂論理少而論數多 然未必以此爲學問宗旨 (중략) 及門之賢如朴思菴 閔杏村 皆一代名儒 而未聞傳其數學也 本土人李西村慶昌 許新湖曾有所論著 或及於易卦爻書閏法等說 而亦未嘗以數學自任也 蓋花潭之學 無師友淵源 法門規模 或有與程朱異者 然其造詣精深 胸懷灑落 有非後生末學所敢議到者”

118) 이런 양상은 남명 조식의 문집이 여러 차례 간행되는 과정에서 본래 조식의 문장에 있는 老莊적인 용어가 삭제되거나 다른 문자로 바뀌는 사정과 유사하다.

119) 『梅山集』 권42, 蘿山趙公墓誌銘 并序 “夫故都之學 肇自圃隱 迄于花潭 而花潭有見于數而未達理之全體 及公作而踐述溪湖之正傳 服習考亭之眞詮 門路旣的 進修彌篤 至老慥慥 克底於有成 蓋西京數百年來一人而已”

번 달라졌다. 다만, 중간에 새로운 글 한편을 발굴하여 신고 또 시 두 편의 제목을 수정하거나 한편의 논설에서 한 글자를 바꾼 경우는 있었지만, 서경덕의 글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여 문장을 첨삭하거나 교정하지 않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다. 변화는 주로 서경덕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조선 사람들의 글을 담은 서·발문, 부록에서 이루어졌다.

다섯 간본은 각각 개별성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초간본 ~ 3간본, 4간본 ~ 5간본까지로 묶어서 그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초간본부터 3간본까지의 간행이 서경덕에게 직접 배운 인물 혹은 그들의 혈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4간본과 5간본은 개성의 유생들이 간행을 주도하되 서울 지역 학계 특히 金用謙, 金元行과 연결되는 '洛學派'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편찬·간행 주체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보이지만, 조선 학계 내부에서 일었던 적지 않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간까지 관계했던 인물들은 東人-北人の 성향을 많이 보였고, 4간과 5간에 간여했던 인물들은 老論-洛學과 인연이 깊었다. 이것은 17~18세기 북인계의 쇠퇴, 老論-洛學의 부상에 대응하는 현상이라 하겠는데, 『화담집』과 노론-낙학과와의 밀접한 관계는 책의 편찬에 간여했던 개성 유생·개성 학계가 낙학의 세계에 밀착되어감을 보여준다. 이 경우, 4간본과 5간본에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5간본에서는 金元行으로부터 학문을 직접 배우고 개성에서 그 입지를 확보하고 있던 趙有善이 주도함으로써 그 밀착도가 더 강해졌다.

한편, 3간본까지는 서경덕 학문의 개성과 뛰어난 '象數學'과 연관하여 강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許曄과 같은 서경덕의 제자가 스승의 학문을 '數學'과 연관하여 중시하는 태도와도 통하는데, 이황이 비판했듯이 '數學'은 서경덕 학문의 약점이기도 했다. 반면 4간본과 5간본에서는 서경덕의 학문은 수학과는 거리가 멀며 그는 '醇儒'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양상은 5간본에서 특히 강화되었는데, 서경덕의 학문에 접근하는 태도의 변화라 하겠다. 서경덕의 학문이 이와 같다면, 이 점을 강조하는 조유선과 같은 개성의 유자들은 개성이 낳은 서경덕이라는 큰 학자의 계승자가 됨에 별다른 허물, 장벽을 갖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경덕의 학문적 전통 위에 서서, 그에게서 부족했던 점을

확충해나가려고 했다. 홍직필이 조유선을 두고 ‘故都 개성의 학문을 계승하면서도 그 부족한 점을 金元行의 正傳과 주자의 眞詮을 통하여 만들어 내고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그러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포착한 모습이라 하겠다.

『화담집』의 재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경덕의 학문을 재발견하려는 4간본과 5간본의 움직임은 조선 건국 후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개성과 개성 지역인들이, 정치경제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던 열망과도 연관이 될 것이다.¹²⁰⁾ 이들의 시각 속에, 서경덕은 개성이 낳은 큰 학자이며 그의 사상을 담은 『화담집』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책이었다.

이번 글은 다섯 차례나 이어진 『화담집』 간행에 대한 최소한의 탐색이다. 17·18세기 학계에서 서경덕 사상이 만드는 과장, 19세기 이후 개성의 학술·문화계 활동에서 서경덕과 『화담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활용이 가지는 힘 등등에 대한 해명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花潭集』, 徐敬德, 尹鑣, 金用謙, 趙有善, 開城과 洛學

투고일(2018. 11. 1), 심사시작일(2018. 11. 8), 심사완료일(2018. 11. 28)

120) 여기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양정필, 2017 「조선시대 開城 지역에 대한 차별과 개성인의 정체성」 『中央史論』 46 참조.

〈Abstract〉

Trends and character of the publication of *Hwadam-Jip*(花潭集)
in the late Joseon Dynasty

Jeong, Ho-hun *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the circumstances in Seo-Gyungduk(徐敬德)'s book *Hwadam-Jip*(花潭集) published in Korea several times, focusing on composition of publications, publishers and publication period. *Hwadam-Jip* was published five times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hen it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after Seo-Gyungduk's Death. Personality in the book, word composition method, contents of recording, publishing place, publisher, etc. have changed every time. Initial publication was led by Seo-Gyungduk's disciples and the people connected with them, and later publications were led by scholars in the Gaesong(開成) area. Such a change is deeply related to the declining of northern scholars, growth of the Gaesong region scholarship.

The paper of this time is the minimum navigation for *Hwadam-Jip* publication which lasted five times. From the 19th century, how was the evaluation of Seo-Gyungduk in the academic and cultural world of Gaeseong, how *Hwadam-Jip* was utilized, and how such evaluation and utilization had power I would like to set aside a future task.

Key Words : *Hwadam-Jip*(花潭集), Seo-Gyungduk(徐敬德), the academic and cultural world of Gaeseong(開城) and Nakhak(洛學), Yun-Hyu, Kim Yonggyum, Cho-Yusun

* Professor, History of Korea,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